

번뇌의 본질 깨달아도 다생 습기 닦아야

인경 스님의 <수심결> 특강 ⑥

'수심결' 이 말하는 돈오점수

현대 한국불교에서 일반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논쟁은 '돈점(頓漸) 논쟁'이다. 중국 불교사에서는 초창기에 경전에 소개되면서 경전의 가르침 내용을 판별할 때 사용된 술어가 돈점이란 용어이다. 어떤 경전은 돈오를 중시한다면, 다른 경전은 점수를 중시한다. 이때 특정한 경전의 가르침이 돈오인지 아니면 점수인지를 판별하는데 있어, 돈점의 논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경전의 가르침을 관정한 관점에서 판별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고, 보는 이에 따라서 돈오나 점수의 양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은 종파불교가 성행한 당나라 불교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돈점의 문제는 단순히 경전의 내용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강조하는 실천 불교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 송 대 이후 교외별전과 간화선 사상이 대두하면서, 깨달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고, 마찬가지로 깨달음은 돈오인지 아니면 점수인지에 대한 부분과 깨달은 이후에는 어떤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런 문제가 현대 한국불교에서 이루어진 돈점논쟁이다. 돈오점수는 보조국사의 <수심결>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보조국사의 경우는 돈오돈수의 경우라도 결국 돈오점수의 체계라는 입장을 취한다. 깨달음과 더불어서 번뇌가 일시에 단박 소멸되는 경우에도 사실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깨달음에 의지해 수행하여온 결과인 까닭에, 역시 돈오점수라고 본다.

<능엄경>의 가르침

(이치는 단박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에 의지해 번뇌를 녹인다. 하지만 일상의 행위는 단박에 제거되지 않는다. 점차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한다. [理則頓悟 乘悟併銷 事非頓除 因次第盡])

간화선을 주창한 대혜를 비롯한 돈오점수를 주장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위 <능엄경(楞嚴經)>의 구절을 인용한다. 이 구절은 왜 돈오점수인지를 설명하는 연구이다. 이것은 첫째로 깨달음은 돈오이며 번뇌는 돈오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점을 말한다. 돈오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번뇌는 제거되지 않음을 말한다. 둘째로 번뇌는 일시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이루어짐을 말한다. 때문에 단박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번뇌는 여전히 남겨진 부분이 있고, 수행자는 '부끄러움'을 알아 계속 공부하기를

권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대혜는 화두수행에서 돈오점수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일상에 절대로 <능엄경>의 이 연구를 놓치지 말고, 그 동안 공부해온 대로 계속하여 정진해 가면 저절로 본래의 마음에 계할 것 이라고 말한다. 이런 대혜의 지적은 간화선과 관련한 돈점의 논쟁에 매우 중요한 전거를 제시한다.

깨달은 이후의 점수에 대해서 대혜는 <능엄경>의 세 가지 점차(三漸次)를 다시 인용하여 세 가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번뇌의 성품을 바로 끊음[例其正性]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번뇌의 성품이 그 자체가 본래 없음을 요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점은 이치와 관련되며 깨달음으로서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이것을 진정한 닦음[眞修]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번뇌의 발생을 돕는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는 일[除其

'돈점' 문제는 경전 뿐 아니라 실천불교에도 중요한 과제 이치는 단박에 깨닫지만 번뇌는 금방 소멸되지 않아

助因)이다. 이점은 번뇌란 그 본질이 텅 빈 관계로 인연을 따라서 발생됨을 알아서, 발생되는 물리적 심리적인 환경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깨달음을 얻었다고는 하나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이것을 경에서는 닦고 익힘[修習]이라고 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현재의 업을 바꾸는 일[達其現業]이다. 이것은 깨달은 다음에 더욱 정진함으로써 얻어진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익어진 행위는 새로운 행위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경에서는 이것을 더욱 정진함[增進]이라고 했다.

<수심결>의 이해

<수심결>에서도 돈오점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역시 <능엄경>을 인용한다. 이치는 단박에 깨닫지만, 현실에서는 번뇌가 금방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심리적인 이유로 보조국사는 다생습기(多生習氣)라는 용어로서 설명한다. 다생이란 윤회하는

오랜 세월을 말하고, 습기는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알라야식 종자(種子)를 말한다. 습기로 말미암아서 번뇌를 일으킨다.

불성은 공적하고 신령한 앎이다. 이것은 마치 거울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 비추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여기에 먼지가 있다면 텅 빈 고요함도 아니요, 대상을 존재하는 그대로 비추지 못한다. 이것이 습기이고 종자이다. <섭대승론>에 의하면 종자는 언어적인 분별, 선악의 행위, 자기집착 등을 말한다. 언어적인 분별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을 마치 실재인양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선악의 행위는 윤회의 원인이므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고, 자기집착은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것들이 바로 습기이다.

문화적인 분별이 습기이다. 이것은 하나의 생이 아니라, 세대를 지나면서 전승되고 학습된다. 습기에 휩싸이면, 공적(空寂)하고 신령한 앎[靈知]이 우리의 자성과 본성, 영성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선지식을 만나서 자성을 깨닫고, 번뇌의 본질이 공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자라도 존재하지 않는 줄 알지만, 오랜 문화적인 습성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번뇌에 휩싸인다. 그래서 깨달은 이후에도 점차적인 닦음이 요청된다. 하지만 전혀 자성을 모르던 시절과는 다르다. 습기가 있지만, 그때마다 곧 알아차려서 본래의 공적한 영지에도 돌아올 수가 있다. 이것이 돈오점수의 의미이다.

인연을 따라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반조하여 보면, 곧 그것은 없다. 알아차림을 하는 순간에 곧 연기처럼 그것은 사라진다. 뜨거운 물에 얼음이 녹아버리듯이 깨달음에 의해서 번뇌는 사라진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곧 그것을 깨달아서 본래의 자성으로 돌아오는 일이 중요하다. 번뇌를 무시위하고, 번뇌를 끊어버리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곧 그것을 알아차리면 된다. 이것을 보조국사는 목우행(牧牛行)이라 한다.

몽산덕이의 보살

간화선의 깨달음을 돈오점수로 설명한 임제종의 대표적인 선승은 남송과 원나라 시대를 살았던 몽산덕이다. 특히 몽산은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는다고 말한다. 곧 간화선에서 깨달음이란 의심의 덩어리를 타파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보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道)로서 심의식(心意識)을 제거하고, 성인과 범부의 길과 배움의 토대를 끊어 내던져 버림은 배워서 이해하는 무리와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이치는 단박에 돈오(頓悟)하지만 일은 점차 된다[漸修]. 여러 생의 습기를 어찌 단박에 다할 수가 있

겠는가? 깨달은 이후에 비범한 속세의 습기는 자연히 차례로 소멸된다. 이로서 이 도인은 옛날의 바로 그 사람이지만, 과거의 행동거지를 바꾸어 버린다. 만약에 옛날의 행동을 제거하지 못하면 깨달아 밝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몽산 선사 역시 돈오점수를 말하고 깨달은 이후의 닦음의 요청으로 다생습기를 언급한다. 오랜 세월의 습기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계속적인 명상수행을 이행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깨달음에 의지하여, 과거의 행동을 정화시키고 자신을 바꾸어 나간다. 이것은 동시에 사회적인 참여이고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대중교화의 길이다. 돈오점수는 수행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 수 있는 위험을 보완하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또한 몽산화상은 깨달은 이후에 대중사를 친견하여 인가를 받는 일을 강조한다. 그런 다음에 깨달은 이후의 닦음에 들어간다. 깨달은 이후의 수행에서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를 열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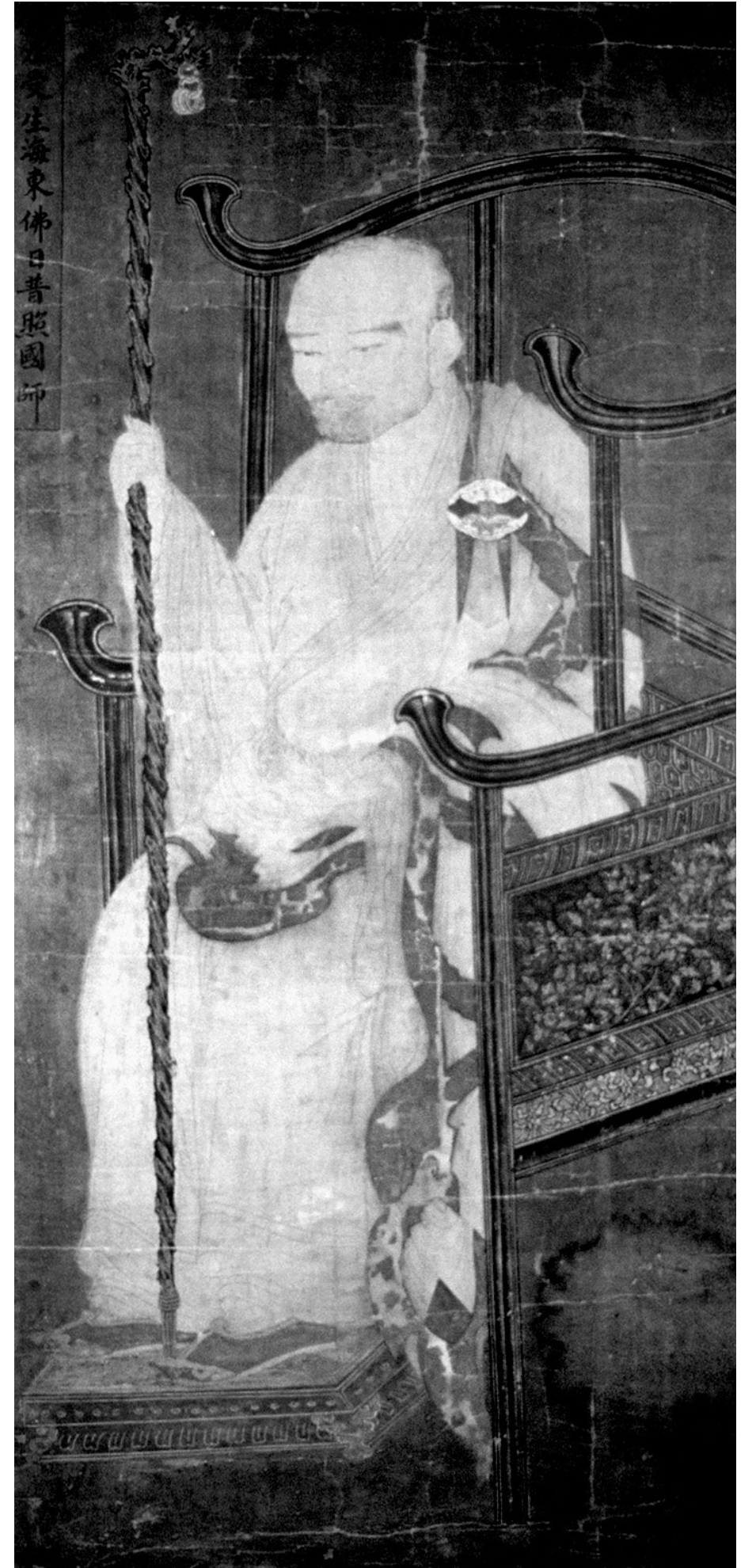
첫째는 부처님의 경전과 유교나 도교의 장서를 열람하는 일이다. 이것은 교외별전을 강조하는 간화선에서 사회적인 중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대중교화를 준

깨달음에 의지하여 행동정화·자기 바꾸는 것은 개인적 돈오점수 차원 아닌 사회참여·대중교화의 길

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둘째는 다생의 습기를 제거하는 문제로 이것은 깨달음을 얻는 이후에도 여전히 습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바로, 간화선이 돈오점수의 수행체계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셋째는 행리치를 바꾸는 것인데, 이점 역시 중요하다. 깨달음이란 '안목만 중시하고 그 행리치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관점이다. 돈수의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이 깨달은 이후에도 이룰테면 화를 잘 낸다든가 아니면 괴팍한 성격은 그대로 가진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돈오점수의 입장에서 이점은 실로 잘못된 견해가 된다. 도인의 삶이란 가장 일반적인 원리로서 해행일치, 곧 깨달음과 그의 행위는 서로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명상담연구원장



보조국사는 <수심결>에서 돈오돈수의 경우라도 결국 돈오점수의 체계라는 입장을 취한다. 사진은 통화사 보조국사 진영

빙의 (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O.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금)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